농어촌 특별전형·내신 혜택 누리려

광주 중학생, 담양 전학 열풍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과 내신성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담양지역 중학교로 전학을 하는 광주지역 중학생들이 늘고 있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광주지역 3학년 학생 14명이 담양 창평중으로 전학을 해 3학년 학생이 51명에서 65명으로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평중은 지난해에도 광주지역 3학년생 10여 명이 전학을 와 내신 산출과 고입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중도 지난해 3학년 2명, 올해는 4명이 전학을 왔으며 담양 고서중도 최근 몇 년 동안 1~2명씩 광주지역 3학년 학생의 전학이 이어지고 있다.

담양읍과 창평면에 위치한 중학교에 전학생이 몰리는 이유는 농어촌 특별전형 시행으로 인근 창평고등학교(모집정원 280명)가 대학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학군이 맞지 않거나 원하는 고교 진학이 어려운 상위권 학생들이 이러한 역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 유학이 이뤄지면서 농촌 학생들이 인근 학교를 두고 먼 거리 고교로 밀려나거나 도리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입시를 위해서 명문고 진학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아 최근 광주 인근 담양 창평이나 화순 능주지역 중학교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어촌 특별 전형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농어촌 거주 3년 이상이돼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본상 보호자와 본인이 전학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에 등재가 되어 있고 학적부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해당 학교장이 전학을 받아들여야 한다.

창평중 관계자는 "대부분 학생들이 창평중에서 가까운 창평고에 진학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원거리 학교로 가야 한다"며 "광주나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에 밀려 지역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장들이 전학을 원하는 학생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억 이상 지방세 장기체납자

광주시, 17일 51명 명단 공개

광주시가 1억원 이상 지방세 장기체납자 51명의 실명을 공개한다.

광주시는 5일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51명의 법인 및 개인 실명과 나이·주소·체납액 등을 오는 17일 시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장기 체납자는 법인 24곳, 개인 27명이다. 체납액은 13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55억 원의 18.3%에 이른다.

체납자 51명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공개 대상이 된 경우는 9명(14억원)이며, 나머지 42명 중 40명(96억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름이 공개된다.

또 2명은 지난해 실명 공개 대상이었으나, 분할 납부를 약속해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번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고질 체납자 사법기관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도 체납자 명단을 다시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타인 ID 4천개·이메일 100만개 구입

대학생이 수천명에 불법 스팸메일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인터넷에서 이메일(E-mail) 계정과 아이디(ID)를 구입한 뒤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전북 K대학 3학년 안모(2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월 인터넷 J 정보공유사이트에서 국내 포털업체 D사에 가입된 아이디 4천112개(비밀번호 포함 556개)와 10여 개 포털업체 이메일 계정 100만 개를 40만원에 구입한 뒤 추모(25)씨 등 4명의 계정에 침입, 추씨 등 명의로 수천명에게 광고메일을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광고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해주는 '쪽지 발송기' 프로그램을 이용, 네 차례에 걸쳐 스팸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안씨가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안씨의 컴퓨터를 압수,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안씨는 자신이 사들인 아이디와 이메일 계정을 네티즌들에게 되팔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비자금 관리인 상속녀 사칭

수억대 사기 2명 쇠고랑

광주지방검찰청은 5일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의 상속녀를 사칭해 수억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전모(59)씨와 전씨의 내연녀 박모(52)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신모(59)씨 등 초등학교 동창생과 이종사촌 등에게 195차례에 걸쳐 7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전씨의 내연녀 박씨는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과 동거했던 것처럼 행세하고 주변인들에게 "관리인이 숨지면서 거액을 명의신탁 형식으로 상속했다"며 10만~2천만원씩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종만 前 영광군수 재판

법정 위증 3명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5일 강종만 전 영광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김모(54)·지모(47)·강모(49)씨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강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된 지난 4월24일과 항소심이 진행된 지난 10월30일 광주지·고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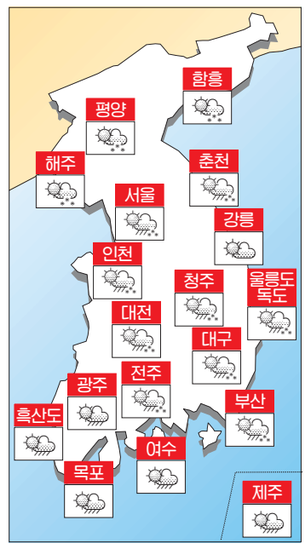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강 군수와 경쟁했던 후보의 측근인 김씨가 지씨와 짜고 강 군수가 뇌물을 받도록 함정에 빠뜨린 뒤 재판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빗방울과 눈송이

12월 6일 (음 10월 27일) ◇전국날씨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다.

광 주	흐려져 비	0~7℃
목 포	흐려져 비	1~7℃
여 수	흐려져 비	2~8℃
완 도	흐려져 비	1~9℃
구 례	흐려져 비/눈	-3~7℃
해 남	흐려져 비	-1~7℃
장 흥	흐려져 비	-2~7℃
고 흥	흐려져 비	-2~8℃
순 천	흐려져 비/눈	-3~8℃
영 광	흐려져 비	-3~8℃
진 도	흐려져 비	1~9℃
전 주	흐려져 비/눈	-3~6℃
남 원	흐려져 비/눈	-5~7℃
흑산도	흐려져 비	5~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2.0m

목 포 밀물 12:05 23:53 썰물 04:49 17:28
여 수 밀물 07:11 19:05 썰물 00:38 13:14

▲해뜸 07:26 ▲해짐 17:20 ▲달뜸 04:08 ▲달짐 14: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날 씨						
최저/최고	2/7	0/10	-1/10	-1/10	1/9	0/10

개화일·단풍 절정일도 예보합니다

광주기상청 이달부터

매화 등 식물 10종

표준목 지정 관측

"무등산 장불재의 단풍이 증심사 진입로까지 곱게 물들이면서 이번 주말 단풍 절정일이 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기예보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개나리·단풍 등 식물 10종을 표준목으로 지정, 이달부터 식물의 개화나 단풍 등을 관측·예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지정된 관측 구간과 기준목에는 표지석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표준목의 개화일뿐만 아니라 개화율(%)도 같이 기록해 과학적인 자료 관리에 들어간다.

현재는 개나리·벚꽃과 같이 한 개체에 많은 꽃이 피는 식물의 경우 3~4송이의 꽃이 피었을 때를 개화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표준목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의 꽃봉오리 개수에 개화된 꽃송이 수를 비교해 퍼센트로 나타내게 된다. 꽃봉오리 100개에서 3개의 꽃이 피었다면 개화율은 3%가 된다.

기상청은 또 단풍 관측을 위해 기준 봉우리를 지정, 봉우리 정상으로부터 하단 기준점까지 단풍이 전체면적의 20%에 달할 때를 단풍 시작일, 80%에 달할 때를 절정일로 예보키로 했다.

단풍 관측을 위해 지정된 호남지역의 기준 관측 봉우리는 지리산 정령치·무등산 장불재·월출산 천황봉·조계산 연산봉 등 9곳이다.

여수 오동도 등대 주변 동백나무 군락지도 관측 기준 구역으로 설정됐다. 기존에 오동도 일대로 지정돼 있던 관측구역이 '오동도 등대 주변 동백나무 군락지'로 구체화됐고, 등대 정문 옆 관리번호 1,2,3번 동백나무가 관측 표준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계절의 변화를 관측하는 표준목은 1월 중순 꽃망울을 내미는 매화를 비롯한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 ▲복숭아 ▲배나무 ▲아카시아 ▲코스모스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 10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경찰 '소촌동 시대' 활짝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광주지방경찰 청사가 10일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개청 준비 작업으로 분주하다. 지난 2005년 착공해 371억원이 투입된 광주경찰청 청사는 부지 3만9천961㎡, 건물 면적 1만9천698㎡ 규모로 지하 1층·지상 9층의 본관동과 지상 2층의 민원동으로 이뤄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초·중생 '납치 주의보'

서부교육청, 범죄 예방 공문

광주지역 학생들에게 '범죄 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 서부교육청은 5일 관내 83개 초등학교와 49개 중학교에 '자녀 납치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학생 가정에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청 측은 서부와 남부, 광산경찰서 등에도 공문을 보내 학생 상대 범죄 예방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최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 나타났던 남성 때문이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학생들에게 접근, 관공서 위치를 묻거나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짓말로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교육청은 또 서구 한 중학교 교사에게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접수되자 담임 교사와 학교 방송을 통해 '범죄 주의'를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